1. 차라리 한때의 적막을 택하라.

- 도리를 지키고 덕을 베풀며 사는 사람은 한때 적막하지만 권세에 아부하는 자는 영원히 처량하다. 달인은 사물 밖의 사물을 보며 사후의 명예를 생각하나니, 차라리 한때 적막할 지언정 영원히 처량해지는 길은 택하지 않는다.

2. 능란하기보다는 소박한 것이 낫다.

-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거친 물결을 건너가는 것과 같다. 세상일의 경험이 얕으면 세상에 때 묻는 것 또한 적고, 세상일에 경험이 많을수록 남을 속이는 재주 또한 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능란하기보다는 차라리 소박한 것이 낫고, 치밀하기보다는 오히려 털털한 편이 낫다.

3. 재주는 남들이 쉽게 알지 못하도록 숨기라.

- 군자는 자신의 마음을 꾸미지 않아서, 하늘이 푸르고 태양이 빛나는 것처럼 누가 보더라도 그 마음을 알 수 있게 하고, 자신의 재주나 지혜는 구슬이 바위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같이 남들이 쉽게 알지 못하게 한다.

4. 가까이하고도 물들지 않는 사람이 더욱 청렴결백하다

- 권세와 부귀를 가까이하지 않는 사람을 청렴결백하다고 하지만 이를 가까이하고도 물들지 않는 사람이 더욱 청렴결백한 사람이고, 잔재주와 교묘한 방법으로 남을 중상모략하지 않는 사람을 고상하다고 하지만 이를 알면서도 쓰지 않는 사람이 더욱 고상한 인격자이다.

5. 거슬리는 말은 덕과 행실을 닦는 숫돌이다

- 귀에 항상 거슬리는 말이 들리고 마음속에서는 항상 마음에 어긋나는 일만 일어난다면, 이것이야말로 덕과 행실을 닦는 숫돌이 될것이며, 만약 들리는 말마다 귀에 즐겁고 하는 일마다 마음에 흡족하기만 하면 이야말로 자기 몸을 매어 그 그림자만 지나간 음식을 먹어도 사람이

죽는다는 짐새의 독(毒)속에 자신을 파묻는 일이 될 것이다.
- 귀에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보다도 진심어린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진짜 재산임을 알아야 한다.

6. 마음에 즐거움이 있게 하라

- 거센 바람과 폭우에는 새들도 조심하고, 화창한 날씨와 미풍에는 풀과 나무도 기뻐한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따뜻한 기운이 없다면 이 세상이 하루도 존재하지 못함을 알고, 사람의 마음에는 하루라도 즐거움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참 만족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인격을 닦아 자족하는 법을 알면 즐거움은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 늘 있는 법이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다.

7. 담담한 맛과 평범한 사람이 진짜 진국이다

- 잘 익은 술, 기름진 고기와 맵고 단 것이 참맛이 아니다. 참맛은 오직 담담할 뿐이다. 신기한 재주를 부리고 별다른 뛰어난 모습을 보인다고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아니다.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다만 평범할 뿐이다.

8. 바쁜 때일수록 여유를 잃지 말라

- 천지는 고요하지만 그 활동은 잠시도 멈추지 않으며, 해와 달은 밤낮으로 달리고 있지만 그 빛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참된 사람은 한가로운 때에 위급할 때를 대비하고, 바쁜 날에도 여유를 잃지 않아야 한다.
-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을 기억해야 한다.

9. 깊은 밤 홀로 앉아 마음을 살피라

- 깊은 밤 모두 잠들어 사위가 고요할 때 홀로 앉아 마음을 살펴보면, 비로소 허망한 생각이 흩어지고 참된 마음이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언제나 이런 가운데서 큰 진리를 얻게 된다. 그러나 이미 참된 마음이 나타났음을 느끼면서도 허망한 생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면, 또

한 이 가운데서 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10. 일이 뜻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라

- 은혜를 입고 있는 중에 재앙이 싹트는 것이니, 만족스러울 때는 주위를 되돌아보라. 또한 실패한 뒤에 오히려 성공이 따르는 경우도 있으니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작정 손을 놓지 말라.

11. 가난 속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

- 명아주나물과 비름나물과 같은 들풀로 입을 달래고 창자를 채우는 가난 속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의 마음은 얼음처럼 맑고 옥구슬처럼 깨긋한 사람이 많지만, 부귀를 탐내어 비단옷을 입고 기름진 고기를 먹는 사람 중에는 남에게 굽실거리며 종 노릇 하는 것을 달게 여기는 사람이 많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은 청렴결백해야 지조가 깃들어 밝아지고, 부귀를 탐내면 절개를 잃게된다.
- 가난은 잠깐 동안의 시련이고, 풍요는 반드시 '가난'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얻어진다.

12. 마음을 활짝 열어 너그럽게 하라

- 살아 있을 때는 마음을 활짝 열고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여 불평을 듣지 않도록 하며, 죽은 뒤에는 은혜가 길이 이어지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13. 맛있는 음식은 덜어서 나눠 먹으라

- 좁은 길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서 남을 먼저 지나가게 하고, 맛있는 음식은 혼자 먹지 말고 일부를 덜어서 남들과 나누어 먹으라. 이런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다.

14. 마음에서 물욕을 물리치라

- 사람이 뛰어나게 위대한 일을 한 것은 없을지라도 속된 욕심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그것만으로 이름이 헛되지 않을 것이요, 학문을 하는 사람이 비록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다할지라도 물욕을 마음속에서 물리치

기만 한다면 가히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15. 사람을 부릴 때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

- 벗을 사귈 때에는 서로 넉넉히 도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사람을 부릴 때에는 반드시 한 점의 순수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

16. 자신을 다스려 스스로 몸을 닦으라

- 혜택과 이익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보다 앞서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사람에게 덕을 베푸는 데는 다른 사람에 뒤떨어지지 말라. 남에게 받는 보수는 자신의 분수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자신을 다스려 스스로 몸을 닦는 일은 자신의 분수에 넘치도록 행하라.

17.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양보하라

- 세상을 사는 데는 한 걸음 양보하는 것을 높게 여기니, 그것은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곧 스스로 한 걸음 나아가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을 대할 때는 엄격함보다 너그럽게 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니, 그것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를 이롭게 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 외나무다리 위에서 두 마리의 염소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한 염소가 쭈그리고 앉아 등을 내밀어 다른 염소가 타고 지나가게 한다. 그 염소가 지나간 후에야 자기도 다리를 건널 수 있기 때문이다. 양보해 주는 일이 곧 내게 유익으로 돌아옴을 알아야 한다.

18. 공로를 자랑하면 가치를 잃는다

- 온 세상에 알려질 만큼 공로를 세웠더라도 스스로 그 일을 자랑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이며, 하늘에 가득 찰 만큼 큰 죄를 지었더라도 진심으로 깊이 뉘우친다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19.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나의 책임으로 돌리라

- 명예와 훌륭한 공로는 혼자 독차지하지 말라. 조금은 남에게 나누어주어야 해를 멀리하여 몸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다. 욕된 행실과 이름을

더럽히는 일은 모두 남의 탓으로만 돌리지 말라. 조금은 끌어다 나의 책임으로 돌려야 지혜를 안으로 간직하고 덕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20. 모든 일에 여유를 두라

- 모든 일에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갖고 여지를 남겨 둔다면 조물주도 나를 버리지 못하고 귀신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일마다 반드시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공들일 때마다 다 채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안으로 변고가 생기지 않으면 밖으로 근심을 불러들이게 될 것이다.

21. 부모 형제를 나와 한 몸처럼 여겨라

- 가정에도 하나의 참다운 부처가 있고, 일상속에서도 한 가지 참된 도가 있다. 사람이 성실한 마음과 온화한 기운을 지니고, 즐거운 표정과 부드러운 말씨로 부모 형제를 나와 한 몸처럼 여겨 통하게 한다면, 이는 부처님 앞에 앉아 숨을 고르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1만 배는 나을 것이다.

22. 어떤 환경에서도 활기를 잃지 말라

- 움직이기를 즐기는 사람은 구름 속의 번개나 바람 앞의 등불과 같고, 고요함을 즐기는 사람은 불꺼진 재나 마른 나뭇가지와 같다. 사람은 흘러가지 않는 구름이나 잔잔한 물과 같은 경지에서도 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노는 기상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도를 깨우친 사람의 마음이다.

23. 가르칠 때도 상대방을 배려하라

- 남의 허물을 꾸짖을 때는 너무 엄하게 하지 말라. 그가 받아서 감당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사람을 선으로 가르치되 지나치게 고상하게 하지 말라. 그 사람이 들어서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4. 밝음은 항상 어둠에서 비롯됨을 알라

- 굼벵이는 더럽지만 매미로 변하여 가을바람에 맑은 이슬을 마시고, 썩

은 풀은 빛이 없지만 반딧불이로 변해서 여름밤을 빛낸다. 깨끗함은 항상 더러움에서 나오고, 밝음은 항상 어두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25. 욕망과 사사로운 탐닉은 모두가 망상이다

- 뽐내고 오만한 것 중에 객기가 아닌 것이 없으니 객기를 물리친 뒤에야 바른 기운이 자랄 수 있다. 욕망과 사사로운 탐닉은 모두가 망상이므로 이런 마음을 물리친 뒤에야 진심이 나타나게 된다.

26.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리석음을 깨치라

- 포식한 후에 음식을 생각하면 맛이 있고 없음의 구별을 할 수 없고, 성교 후에 욕정을 생각하면 남녀의 구분도 없어진다. 그러므로 일이 끝나고 난 뒤에 뉘우치게 될 것을 미리 생각하여,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리석음을 깨쳐 버린다면 본성이 바로잡혀 바르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27. 산림에 묻혀 있어도 늘 조정에 나갈 때를 대비하라

- 높은 지위에 올라앉아 있을 때에도 산림에 묻혀 사는 풍취가 있어야 하고, 산림에 묻혀 있을지라도 늘 조정에 나갈 때를 대비하여 세상을 밝게 알아야 한다.

28. 남에게 베풀 때는 마음을 비우라

-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성공을 바라서는 안된다. 그르침이 없다면 그것이 곧 성공이다. 남에게 베풀 때는 상대가 감격하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상대의 원망이 없다면 그것이 곧 덕이다.

29. 지나친 청렴결백은 무익하다

- 염려가 많고 부지런한 것이 미덕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수고하면 본연의 성정을 즐겁게 할 수 없다. 청렴결백한 것이 고상하긴 하지만 지나치게 메마르면 사람은 구해도 사물을 이롭게 할 수 없다.

30. 마땅히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을 살피라

- 하던 일이 벽에 부딪히고 기운이 꺾인 사람은 마땅히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 공훈을 이루고 성공한 사람은 마땅히 일의 결말을 살펴보아야 한다.

31. 부귀를 누리는 사람은 인색하면 안된다

- 부귀한 집안은 너그럽고 후덕해야 하는데 오히려 샘을 내고 인색하게 군다면, 그것은 부귀하면서도 가난하고 천하게 행동하는 것이므로 어찌 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총명한 사람은 그 재주를 감추어야 하건만 오히려 드러내 자랑한다면, 총명하면서도 어둡고 어리석음에 병든 것이니 어찌 실패하지 않겠는가?

32. 겪어 본 후에야 알게 된다

낮은 곳에 살아본 후에야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두운 곳에 있어 본 후에야 밝은 빛이 눈부신 줄 알게 된다. 조용한 생활을 해본 후에야 분주하게 움직이기 좋아함이 수고로운 것임을 알게 되고, 침묵하는 것을 배운 후에야 말 많은 것이 시끄러운 줄 알게 된다.

33. 마음을 묶고 있는 얽매임을 떨쳐 버리라

- 부귀와 공명에 얽매인 마음을 다 털어 버려야 비로소 평범하고 속된 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도덕과 인의에 얽매인 마음을 다 벗어 버려야 비로소 성인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34. 독단적인 생각이 마음을 갉아먹는 해충이다

- 이익을 얻으려는 욕심이 다 마음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고집스러운 독단적인 생각이 바로 마음을 갉아먹는 해충이고, 애욕이 만드시 도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총명하다고 보는 생각이 바로 도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는 것이다.

35. 적절히 양보하는 덕을 기르라

-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고 세상살이는 험난하다. 그러므로 나아가기 어려운 곳에서는 모름지기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법을 알아야 하고, 쉽게 나아갈 수 있는 곳에서도 적절히 양보하는 덕을 길러야 한다.

36. 사람을 대할 때는 균형을 잘 잡으라

- 소인배는 엄히 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렵고, 참된 분을 모실 때에는 공손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공손이 지나쳐 비굴해지지 않도록 예절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

37. 깨끗한 이름을 남기도록 하라

- 차라리 순박함을 지키고 총명함을 물리쳐 약간의 바른 기운을 남겨 천지에 돌려주고, 차라리 화려함을 사양하고 담담함을 달게 여겨 하나의 깨끗한 이름을 세상에 남기도록 하라.

38. 먼저 자신의 마음부터 굴복시켜라

- 악마를 굴복시키려면 먼저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라. 자신의 마음이 잘 다스려지면 모든 악마들이 스스로 물러갈 것이다. 남의 횡포를 누르려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혈기를 다스리라.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평화로워지면 외부로부터 횡포가 침입하지 못할 것이다.

39. 친구를 조심해서 사귀게 하라

- 자녀 교육은 마치 규중의 처녀를 기르는 것과 같으니 무엇보다도 출입을 엄하게 하고 친구를 조심해서 사귀게 해야 한다. 만일 한 번 나쁜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 이것은 마치 깨끗한 밭에 잡초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서 한평생 좋은 곡식을 심기가 어려울 것이다.

40. 정욕은 처음부터 엄하게 다스리라

- 정욕에 관한 일은 쉽게 즐길 수 있을지라도 결코 손 끝에 물들이지 말라. 한번 손 끝에 물들이게 되면 곧 먼 길 낭떨어지 아래로 굴러 떨어

질 것이다. 바른 길에 관한 일은 비록 어렵더라도 조금이라도 뒤로 물러서서는 안된다. 일단 한 걸음 물러서게 되면 천 개의 산이 앞을 가로막은 듯 멀어지게 될 것이다.

41. 자기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후하게 대하라

- 생각이 깊은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남에게도 후하여 모든 일마다 두텁기만 하고, 마음이 담백한 사람은 자기와 남에게 모두 싱겁기만 하여 담백하기만 하다. 그러므로 참된 사람은 일상생활의 좋아함과 싫어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두텁거나 너무 얇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42. 사람이 뜻을 모으면 하늘도 이긴다

- 다른 사람이 부를 내세울 때 내게는 인이 있고, 다른 사람이 지위를 내세울 때 나에게는 의로움이 있다. 그러므로 참된 사람은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도 농락을 당하지 않는다. 사람이 머무를 곳을 안다면 하늘도 그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사람이 뜻을 하나로 모은다면 타고난 기질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참된 사람은 조물주가 정해준 틀 속에 갇히지 않는다.

43. 한 걸음 높게 뜻을 세우라

- 세상 사람보다 한 걸음 높이 서서 뜻을 세우지 못한다면, 마치 티끌 속에서 옷을 털고 진흙 속에서 발을 씻는 것과 같으니 어찌 인생을 달관할 수 있겠는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걸음 물러서지 못한다면, 마치 불나방이 등불에 뛰어들고 숫양이 울타리를 들이받다가 뿔이 울타리에 걸리는 것과 같으니 어찌 안락할 수 있겠는가?

44. 오직 정신을 모아 한 길로만 집중하라

- 학문하는 사람은 오직 정신을 모아 한 곳에 집중해야 한다. 만일 덕을 닦으면서 뜻을 성공이나 명예에 둔다면 진정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또한 책을 읽으면서 읊는 재미나 풍류에 급급하면 깊은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45. 욕정에 사로잡혀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 사람마다 모두 자비심이 있으니 깨달은 사람과 중생이 두 마음이 아니고, 사람 사는 곳마다 모두 저마다의 참된 맛과 향기가 있으니 황금으로 꾸민 집과 초가집이 서로 다르지 않다. 다만 욕심에 덮이고 욕정에 사로잡혀 한 번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지척이 천리가 되고 만다.

46. 탐내고 부러워하는 마음을 버려라

- 도를 닦고 덕을 기르려면 목석같이 굳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만일 한 번 탐내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그 길로 물욕의 세계로 곤두박질친다. 세상을 구하고 나라를 다스림에는 흐르는 물이나 구름처럼 맑은 취미를 가져야 한다. 만일 한번 탐욕에 집착하게 되면 그길로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47. 온유하고 온화한 마음을 지니라

- 착한 사람은 일상적인 행동이 온유하고 자상해서 잠잘 때 정신까지도 온화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하는 일마다 사납고 비뚤어져서 그 목소리와 웃으며 하는 말에도 살벌한 기운이 섞여 나온다.

48. 어두운 곳에서도 죄를 짓지 말라

- 간이 병들면 눈이 멀게 되고 콩팥이 병들면 귀가 들리지 않는다. 병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들지만 반드시 남들이 모두 다 볼 수 있는 곳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참된 사람은, 밝은 곳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먼저 어두운 곳에서 죄를 짓지 않아야 함을 안다.

49. 일에 시달려본 사람만이 일 적음이 복인 줄 안다

- 일이 적은 것보다 더한 복이 없고, 마음 쓸 일이 많은 것보다 더한 화가 없다. 그러므로 오직 일에 시달려 본 사람이라야 일이 적은 것이 복됨을 알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라야 마음 쓸 일이 많은 것이 화임을 알게 된다.

50. 보통 사람은 너그럽고도 엄하게 대하라

- 태평한 세상에 살 때는 몸가짐을 방정하게 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살 때는 마땅히 원만해야 하며, 평범한 세상에 살 때는 마땅히 떳떳하면서도 원만하여 적절하게 처신해야 한다. 선량하고 착한 사람을 대할 때는 마땅히 너그러워야 하고, 악한 사람을 대할 때는 마땅히 엄격해야 하며, 평범한 보통 사람을 대할 때에는 마땅히 너그러움과 엄격함을 함께 함께 지녀 적절하게 대해야 한다.

51. 잘못한 일은 마음 깊이 새겨두라

- 내가 남에게 베푼 일은 마음에 새겨두지말고, 잘못한 일은 마음 깊이 새겨두어야 한다. 남이 내게 베푼 일은 잊지 말고, 내가 남에게 원한이 있거든 잊어야 한다.

52. 베푼 은혜를 따져 보답을 바라지 말라

- 은혜를 베푼 사람이 안으로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밖으로 남에게도 나타내지 않는다면 곡식 한 알이 뿌려져서 온 들판을 덮는 것과 같고,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자기의 은혜 베푼 것을 따져서 남에게 보답을 강요한다면 비록 수십억의 재물을 베풀었다고 해도 한 푼의 공로도 없는 것이다.

53. 세상 일에 균형을 잘 잡으며 살라

-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 다 달라서 많이 가진 이도 있고 못가진 이도 있는데, 어찌 나만 홀로 다 가지려고 할 수 있겠는가. 또 자기의 마음을 보더라도 도리에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는데, 어찌 모든 사람이 다 도리에 맞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이같이 자신과 남을 견주어 가면서 자신을 다스려 나간다면 이것도 세상을 살아가는 한 방편이 될 것이다.

54. 마음 바탕을 깨끗이 한 후에 배우고 익히라

- 마음 바탕을 깨끗이 한 다음에야 비로소 책을 읽어 옛것을 배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 착한 일을 보는 대로 훔쳐 자기 욕심을 채우고, 한 가지 착한말마저도 자기의 잘못을 덮는 데 쓸 뿐이다. 이는

곧 적에게 군사를 대주고 도둑에게 양식을 대주는 것과 같다.

55. 가난하면서도 여유 있는 것이 낫다

- 사치스러운 사람은 부유해도 만족하지 못하니, 어찌 검소한 사람이 가난하면서도 여유 있는 것과 같을 수 있겠는가. 일에 능숙한 사람이 애써 일하고서도 원망을 불러들이니, 어찌 서투른 사람이 한가로우면서도 본래 성품을 지키는 것과 같을 수 있겠는가.

56. 관복을 입은 도둑이 되지 말라

- 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성현을 보지 못한다면 그는 글이나 베끼는 사람이 될 것이고, 벼슬자리에 있으면서도 백성을 자식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관복을 입은 도둑에 지나지 않는다. 학문을 가르치면서도 몸소 실천하지 않는다면 말로만 거창하게 떠들어대는 일이 될 것이다. 사업을 하면서도 덕을 베풀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은 한때 눈앞에 피었다가 지는 꽃같이 될 것이다.

57. 진정한 보람을 얻으려면 본래의 참마음을 찾으라

- 사람마다 마음속에 참된 문장, 즉 이성이 있으나 모두 옛사람들의 부스러기 글 때문에 갇혀 있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저마다 한 가닥의 참된 음악, 즉 감성이 있으나 세상의 천박한 가무에 모두 묻혀 버린다. 그러므로 배우는 사람은 하찮은 외부의 사물을 쓸어버리고 본래의 참마음을 찾아야 비로소 진정한 보람을 얻게된다.

58. 괴로움 속에서 오히려 마음을 즐겁게 다스리라

- 반드시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이 한 가지씩은 있다. 찾아서 연마하괴로울 때 힘들 때 오히려 마음을 기쁘게 하는 뜻을 얻고, 일을 이룬 때에 문득 실의의 슬픔이 생겨난다.
- 사람은 누구나 고통스러운 환부 한 군데씩은 갖고 살고 있다. 찾아보면 고 계발하면 더없이 깊은 상처도 밤하늘을 환하게 밝혀주는 별이 된다.

59. 도덕은 오래 가고 공로와 권력은 곧 시든다

- 부귀와 명예가 도덕으로부터 온 것이면 마치 숲속의 꽃처럼 그 뿌리와 잎이 자연스럽게 번성할 것이고, 부귀와 명예가 공로를 이룬 데서 온 것이면 화분 속의 꽃처럼 자주 자리를 옮기게 되어 흥망이 있을 것이다. 또한 부귀와 명예가 권력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화병 속의 꽃처럼 뿌리를 심지 않은 탓으로 금방 시들어 버리고 말 것이다.

-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 인생은 끝이 아니고 과정이다. 영원을 사모하며 과정을 잘 채워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보람 있는 인생이다.

60. 좋은 말과 좋은 일 하기를 힘쓰라

- 봄이 되어 화창하면 꽃은 한층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새들은 고운 노래를 지저귄다. 사람이 세상에 두각을 나타내어 부유하게 살더라도 좋은 말과 좋은 일 하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백 년을 살아도 마치 하루도 살지 않은 것과 같다.
- 부유하게 살면서도 이웃과 사회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하지 않고 녹슬게 방치해 두는 것과 같다. 나누지 않는 부는 먹지 못하는 돌멩이를 창고에 쌓아두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다.

61. 몸가짐을 너무 엄하게 하지 말라

- 배우는 사람은 항상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되, 한편으로 활달한 멋을 지녀야 한다. 몸가짐을 너무 엄하게 하여 지나치게 결백하기만 하면 그것은 쌀쌀한 가을의 냉기만 있을 뿐 따뜻한 봄 기운이 없어 만물을 자라게 할 수 없다.
- 높은 이상에 집착한 나머지 의식적으로 고상한 척하면 주위에 사람이 모여들지 않는다.
- 어려운 자리일수록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풀어주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한다. 옛날에는 엄격한 리더십이 강한 통솔력을 갖고 있는 듯 여겨지던 시대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신중한 가운데 너그럽고, 엄격한 가운데서도 사

람들 입가에 미소가 어리게 하는 유머를 구사할 줄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은 웃음이 아닌가.

62. 큰 재주는 오히려 평범한 가운데 있다

- 참된 청렴은 청렴하다는 이름조차 없는 것이다.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름을 탐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큰 재주는 별달리 교묘한 재주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잔재주를 부리는 것은 곧 재주가 서투르기 때문이다.
- 링컨대통령이 암살 된후 부통령이었던 엔드류 존슨은 17대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지만 상대편으로부터 맹렬한 비판을 당한다.
  “한 나라를 이끌 대통령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니 말이 됩니까?” 그러자 존슨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이 한 마디에 상황을 역전시켜 버렸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초등학교를 다녔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지만 전 세계를 구원의 길로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이 나라를 이끄는 힘은 학력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지요 미국 국민의 적극적 지지입니다.” 그가 바로 알래스카를 러시아에서 사들인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다. 긍정적인 생각은 자긍심을 고모해주고, 놀라운 에너지를 부여해 준다.

63. 욕심을 없애고 모자라는 상태에 머무르라

- 옛 임금이 자신을 경계하기 위해 만든, 가득 차면 엎어지는 그릇처럼 가득 차면 엎어지지 않기 위해, 또 가득 차면 깨뜨리는 저금통이 비어 있을 때는 온전한 것처럼, 참된 사람은 욕심을 부려 가득한 상태에 있기보다 욕심을 없애고 모자라는 상태에 머무르려고 한다.
- 철옹성 같던 만리장성이 무너진 것은 실제로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은 문지기 때문이었다. 활짝 열린 문을 통해 순식간에 적군들이 침입했던 것이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런 일이 일어났다. 성벽이 제 아무리 튼튼하고 잘 쌓아졌다지만 문지기 한 사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그토록 튼튼한 철옹성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이다.

64. 마음을 비우고 혈기를 버려라

- 名利를 탐하는 마음이 뿌리 뽑히지 않은 사람은, 비록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한 표주박의 물을 달게 마실지라도 사실은 세속의 욕망에 떨어져 있는 것이다. 쓸데없는 혈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사람은, 비록 은덕을 사방에 널리 베풀고 이익을 만대에 전할지라도 결국은 쓸모없는 재주에 그칠 뿐이다.

65. 마음 바탕을 밝게 지키라

- 마음 바탕이 밝으면 어두운 방 속에서도 푸른 하늘을 보며, 마음 바탕이 어두우면 대낮에도 귀신을 보게 된다.

66. 이름 없고 지위 없는 즐거움을 알라

- 사람들은 명성과 높은 지위를 얻어 사는 것이 즐거움인 줄 알지만, 이름 없고 지위 없이 홀가분하게 사는 즐거움이 더 참된 즐거움인 줄 모른다. 사람들은 굶주리고 추운 것만이 근심인 줄 알지만, 굶주리지 않고 춥지 않은 근심이 더 큰 근심인 줄 모른다.

67. 선한 일을 하며 알아주기를 안달하지 말라

- 악한 일을 하면서 남이 알까 봐 두려움을 갖는 것은 아직 악함 속에도 선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선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안달한다면 아직 선 속에 악의 뿌리가 남아 있어서 이다.

68. 역으로 와도 순리로 받아들이라

- 하늘이 하는 일은 아무도 헤아릴 수 없어서 눌렸다가는 펴지고, 펴졌다가는 다시 눌린다. 이는 모두가 영웅과 호걸을 실패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군자는 천운이 역으로 와도 순리로 받아들이고, 평온함 속에서 위태로움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 최고의 복수는 너그러운 아량으로 용서하고 진심으로 품는 것이다.

69. 복을 누리기 어려운 세 부류의 사람들

- 성질이 조급한 사람은 타오르는 불길과 같아서 보는 것마다 태워 버리

고, 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얼음과 같이 차가워서 닥치는 대로 얼려 죽이며, 융통성이 없고 고집 센 사람은 괴어 있는 물이나 썩은 나무토막 같아 생기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뜻 있는 일을 하고 복을 누리기는 어렵다.

70. 즐거운 마음을 길러 행복의 바탕을 삼으라

- 행복은 구한다고 마음대로 받을 수 없으니 스스로 즐거운 마음을 길러서 행복을 부르는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불행은 마음대로 피할 수 없으니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제거함으로써 재앙을 멀리하는 방법으로 삼아야 한다.
-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어렵더라도 보람 있는 일을 찾으면 새로운 생명 에너지를 얻게 된다. 인간은 보람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 행복하려면 자기의 능력 안에서 크고 작은 봉사와 나눔을 통해 행복을 불러들여야 한다.

71. 떠들지 말고 침묵하는 지혜를 가지라

- 열 마디 말 가운데 아홉 마디가 맞아도 신기하다고 칭찬하지 않으면서, 단 한 마디라도 맞지 않으면 비난의 목소리가 시끄럽다. 열 가지 일 가운데 아홉 가지를 이루어도 공을 인정하지 않지만, 한 가지만 실패해도 비난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빗발친다. 그러므로 군자가 차라리 입을 다물지언정 떠들지 않고, 차라리 모르는 척해 버리고 아는 체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자신의 일에 골몰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일에 골몰하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타인들의 흠만 보인다. 그리고 타인들을 향해 독설을 퍼붓는다.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기 위해서는 60년이 걸린다. 지혜로운 사람은 입 밖으로 말을 뱉기 전에 반드시 두 번 이상 생각한다.

72. 성질이 너무 맑고 차가우면 누릴 복도 얇다

- 천지의 기운은 따뜻하면 만물을 자라게 하고, 차가우면 시들어 죽게 한다. 그러므로 성품과 기질이 지나치게 맑고 차가운 사람은 누릴 복

도 박하다. 오직 기운이 온화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야 누릴 수 있는 복도 두텁고 오래간다.

- 하늘은 표정이 밝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복을 내려줍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행복을 가로막는 장벽이다. 긍정적인 생각은 강력한 행복 자석임을 깨닫자.

73. 하늘의 도리를 따르라

- 하늘의 도리를 따르는 길은 한없이 넓어서 거기에 조금만 마음을 두면 가슴속이 문득 넓어지고 또한 밝아진다. 욕망의 길은 한없이 좁아서 거기에 조금만 발을 들여놓아도 눈앞이 온통 가시덤불과 진흙탕으로 변해 버린다.

74. 많은 체험 뒤에 얻은 행복이 오래간다

- 괴로움과 즐거움을 고루 겪은 뒤에 얻은 행복이 오래 가고, 의문과 믿음을 고루 겪은 뒤에 얻은 지식이라야 비로소 참된 지식이 된다.

75. 마음은 언제나 비워 둬라

- 마음은 언제나 비워 두워야 한다. 비어 있어야만 옳은 뜻과 이치가 찾아와 산다. 마음은 늘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안된다. 가득 차 있어야만 물욕이 들어오지 못한다.

76.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고기가 없다

- 더러운 땅에는 초목이 무성하다.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고기가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때묻고 더러워지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 도량을 지녀야 하며, 깨끗함만 좋아하고 홀로 행하려는 지조를 가져서는 안된다.

77. 평생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며 살라

- 수레를 뒤엎는 사나운 말도 길들이면 부릴 수 있고, 녹으며 다루기 어려운 쇠붙이도 결국에는 그릇이 된다. 사람이 하는 일 없이 놀기만 하고 노력이 없으면 평생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의 병 많음이 근심이 아니라, 평생토록 마음의 병 하나 없는 것

이 근심이다.” 라고 했으니 참으로 옳은 말이다.

78. 탐욕을 멀리하여 세상을 이기라

- 사람이 한번 사사로운 이익에 빠져들다 보면 강직한 기질도 녹아 약해지고 지혜가 막혀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인자한 마음이 혹독해지고 결백한 뜻도 더러워져 인간의 본성을 깨뜨리게 된다. 그러므로 옛 성현들이 탐욕을 멀리했으니, 이것은 곧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이다.

79. 마음이 맑게 깨어 있으면 도둑도 감화시킨다

-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은 외부의 도둑이지만, 정욕과 물욕은 내부의 도둑이다. 한 사람의 주인이 되는 마음이 맑게 깨어서 방안에 의젓이 앉아 있으면, 도둑들도 문득 변하여 한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80. 이루어 놓은 학업을 잘 지키라

- 새로운 공부를 시도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 놓은 학업을 잘 지키는 것만 못하고, 지나간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잘못을 막는 것만 못하다.

81. 모든 행동에 지나침이 없게 하라

- 사람이 기상이 높을수록 좋지만 지나치게 세상일 어두워서는 안 되고, 마음은 빈틈이 없어야 하지만 옹졸해서는 안 된다. 취미는 깨끗한 것이 좋지만 지나쳐서는 안 되고, 지조는 엄정하게 지켜야 하지만 과격해서 융통성이 없으면 안 된다.

82. 일이 끝나면 마음도 비우라

- 바람이 성긴 대숲에 불어와도 지나가고 나면 그 소리를 남기지 않고, 기러기가 차가운 연못을 날아가도 일단 지나가면 그림자를 남겨두지 않는다. 군자 또한 일이 생기면 비로소 마음에 나타나고, 일이 끝나면 마음도 따라서 비워진다.

83. 아름다운 덕을 위해 삶의 균형을 지키라

- 청렴결백하면서도 너그럽고, 어질면서도 결단력이 있으며, 총명하면서도 지나치게 살피지 않고, 강직하면서도 바른 것에만 치우치지 않는다면, 꿀을 바른 음식이 달지 않고 해산물이 짜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이니, 이것이 곧 아름다운 덕이다.

84. 한때 어려움을 당했다고 포기하지 말라

- 가난한 집이라도 깨끗이 청소하고, 가난한 여인이라도 단정하게 머리를 빗으면 그 모습이 화려하지는 않아도 그 기품이 단아해진다. 그러므로 군자가 한때 곤궁하고 적막함을 당했다하여 스스로를 포기한 채 해이해질 수 있겠는가?

85. 어둠 속에서도 속이고 숨기지 말라

- 한가할 때도 헛되이 시간을 쓰지 않으면 바쁠 때에 쓸모가 있고, 조용할 때에도 마음을 놓아버리지 않으면 활동할 때 도움이 되며, 어둠 속에서도 속이고 숨기는 일이 없으면 밝은 곳에서도 쓸모가 있게 된다.

86. 깨달으면 즉시 돌이키라

-생각이 일어난 곳에 문득 조금이라도 욕망의 길로 향한다는 깨달음이 있으면 급히 바른 길로 끌어당겨야 한다. 생각이 한 번 미치면 즉시 깨닫고, 한 번 깨닫게 되면 즉시 돌려야만 재앙이 되돌려 복이 되도록 하고, 죽음에서 일어나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니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87. 마음을 보며 도를 깨닫는 세 가지

- 고요한 가운데 생각이 맑으면 마음의 본모습을 볼 수 있고, 한가한 가운데 기상이 조용하면 마음의 참된 기쁨을 알게 되고, 담백한 가운데 마음의 뜻이 평온하면 마음의 참 맛을 얻을 수 있다. 마음을 보며 도를 체득하는 데는 이 세 가지보다 나은 게 없다.

88. 괴로운 중에 즐거운 마음을 얻으라

- 고요한 중에 고요함은 참된 고요가 아니다. 소란한 중에 고요함을 지켜야만 마음의 참다운 경지에 이를 수가 있다. 즐거운 중에 즐거움은 참다운 즐거움이 아니다. 괴로운 중에 즐거운 마음을 얻어야만 마음의 참된 본체를 볼 수가 있다.

89. 은혜를 베풀었다면 보답을 바라지 말라

- 몸 바쳐 일하기로 했다면 그 일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게 되면 자신의 결심이 부끄러워진다. 남에게 베풀었다면 보답을 바라지 말라. 보답을 바란다면 베풀었던 마음마저 그르치게 된다.

90. 하늘도 어쩌지 못하는 마음 바탕

- 하늘이 내게 복을 박하게 준다면 나의 덕을 두텁게 하여 맞아들이고, 하늘이 내 몸을 수고롭게 한다면 내 마음을 편하게 하여 도울 것이며, 하늘이 내 처지를 곤궁하게 한다면 나는 내 도를 깨우쳐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하늘인들 나를 어찌 하겠는가.

91. 사람의 잔꾀가 부질없음을 알라

- 지조 있는 선비는 복을 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늘이 알아서 찾아가 그 마음을 열어 준다. 간사한 사람은 불행을 피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하늘은 그 애쓰는 안으로 찾아가 넋을 빼앗는다. 하늘의 힘이란 얼마나 놀라운가. 그러니 사람의 잔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92. 사람을 보려면 그 끝 무렵을 보라

- 비록 기생이었다 해도 늘그막에 한 남편만을 따른다면 한평생의 분 냄새가 문제될 것이 없고, 비록 열녀라 할지라도 늘그막에 정조를 잃으면 반평생의 수절이 허사가 되고 만다. 그러므로 옛말에 이르기를 '사람을 보려면 그 생의 후반을 보라.' 고 했으니 진정 명언이다.

93. 벼슬 있는 걸인이 되지 말라

평범한 사람이라도 즐거이 덕을 심고 은혜를 베풀면 벼슬 없는 재상이 되고, 도를 닦는 사람이라도 권세를 탐하고 부귀영화를 구걸한다면 마침내 벼슬 있는 걸인이 되고 말 것이다.

94. 자손에게 물려줄 복을 늘 살피라

- 조상이 남겨준 은혜가 무엇인가. 지금 내가 살아 누리는 모든 것이 그것이니, 그 쌓기 어려움을 생각해야 한다. 자손에게 물려줄 복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것이 그것이니, 그것이 비뚤어지고 잘못되지 않는 가를 늘 살펴야 한다.

95. 군자로서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

- 군자로서 위선적인 행동을 한다면, 소인배가 악을 거침없이 행하는 것과 같다. 군자로서 변절한다면, 소인배가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도 못하다.

96. 다른 일로써 넌지시 깨우치게 하라

- 집안 식구가 잘못하면 크게 화내지도 가볍게 보아 넘기지도 말아야 한다. 그 잘못을 말하기가 어렵다면 다른 일로써 넌지시 깨우치게 하고, 오늘 깨닫지 못하면 내일을 기다려 다시 깨우쳐 주되 봄바람이 언 땅을 녹이고 온기가 얼음장을 녹이듯 하라. 이것이 바로 가정을 다스리는 법도이다.

97. 마음이 언제나 너그럽고 평온하게 하라

- 내 마음을 살펴 항상 원만하게 한다면 세상은 한 점 결함이 없는 세계가 될 것이며, 내 마음이 언제나 너그럽고 평온하다면 세상에 험악한 인정이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98.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소신을 지키라

- 청렴하고 검소한 사람은 반드시 사치스러운 자들에게 위선을 떤다는 의심을 받고, 엄격한 사람은 흔히 방종한 자들에게서 답답하다고 미움

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군자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소신을 지켜야 하고, 또한 지나치게 자기의 주장을 드러내어 상대방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

99. 역경은 모두 약이고 순경은 모두 독이다

-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주위가 모두 침과 약이어서 자신도 모르게 절개와 행실을 갈고 닦게 되나 깨닫지 못한다. 또한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는 눈앞이 모두 칼과 창이어서 살을 말리고 뼈를 깎아 몸을 파멸시키지만 이를 깨닫지 못한다.

100. 자기 자신을 태우는 욕심을 자제하라

- 부귀한 집에서 성장한 사람은 그 욕심이 사나운 불길과 같고 그 권세가 무서운 불꽃과 같다. 이때 만약 조금이라도 식히려는 기운을 지니지 않는다면, 그 불길이 남을 태우지는 못하더라도 반드시 자기 자신을 태워 버리고 말 것이다.

101. 사람의 참모습을 잃지 말라

- 사람의 집념은 여름에도 서리를 내리게 할 수 있고, 울음으로 성곽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쇠붙이와 돌도 뚫을 수가 있다. 그런 거짓된 사람은 한낱 사람의 탈만 갖추었을 뿐 참모습은 이미 사라져, 남을 대하면 얼굴도 흉하게 보이고 혼자 있을 때는 제 모습과 그림자에 스스로 부끄러워진다.

102. 지극한 경지가 곧 평범함임을 알라

- 문장이 지극한 경지에 이르면 다른 기이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다만 알맞을 뿐이다. 인품이 지극한 경지에 이르면 달리 뛰어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다만 본연의 그대로일 뿐이다.
- 소박한 꿈이 가장 행복하고 평범한 삶이 가장 안전하고 지극한 행복을 안겨준다.

103. 세상 만물이 나와 한 모임을 깨달으라

- 세상의 모든 것을 허상으로 본다면, 부귀공명은 물론 내 육신까지도 잠시 빌린 것에 불과하다. 세상의 모든 것을 실상으로 본다면 부모형제는 물론 세상 만물이 나와 한 몸이 아닌 것이 없다. 세상이 허상임을 알고 만물이 나와 한 몸임을 깨닫는다면, 비로소 세상의 짐을 맡아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 진정한 배려는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상대방을 민망하게 만들지도 않는다. 그래서 더욱 그 고마움은 평생을 두고 잊혀지지 않는다.

104. 즐거움은 절반쯤에서 그치라

- 입을 즐겁게 하는 음식은 모두가 장을 상하게 하고 뼈를 썩게 하는 독약과 같으니, 많이 먹지 말고 절반쯤에서 그쳐야 화를 면한다. 마음을 즐겁게 하는 쾌락은 모두가 몸을 망치고 덕을 잃게 하는 매개물이니, 깊이 탐닉하지 말고 절반쯤에서 그쳐야 후회가 없을 것이다.

105. 남의 작은 허물을 꾸짖지 말라

- 남의 작은 허물을 꾸짖지 않으며, 남의 사사로운 비밀을 폭로하지 않으며, 남의 지난 잘못을 새겨두지 말라. 이 세 가지를 명심하면 스스로의 덕을 기를 수 있으며 또한 해로움을 멀리해 줄 것이다.

106. 몸가짐은 진중하게, 마음가짐은 가볍게 하라

- 군자는 몸가짐을 가볍게 하지 말라. 행동이 가벼우면 사물에 마음을 주게 되어 여유와 침착함을 잃게 된다. 또한 군자는 마음가짐을 무겁게 하지 말라. 너무 무거우면 마음속의 사물에 얽매여 시원스럽고 활달한 기운을 잃게 된다.
- 간절한 마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엄중한 죽음의 쇠사슬도 푸는 힘이 있다.

107. 자연은 영원하지만 인생은 유한하다

- 천지는 변함없이 영원하지만 내 몸은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인생은 다만 백 년의 세월뿐으로 오늘 하루가 가장 지나가 버리기 쉽다.

다행히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삶의 즐거움을 깨달아야 하고, 헛된 삶에 대해 근심해야 한다.

- 누구든지 절망의 늪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성공으로 옮겨갈 수 있다.

108. 은혜와 원한을 모두 감추라

- 원한은 덕으로부터 비롯된다. 사람들로 하여금 내게 덕이 있다고 여기게 하느니 차라리 덕과 원한을 모두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낫다. 원수는 은혜로부터 생겨난다.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은혜를 알게 하느니 차라리 은혜와 원한을 모두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
- 울분을 극복하고 복수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이기는 것이다. 용서란 용서를 받는 사람과 똑같이 용서하는 사람에게도 기쁨을 가져다 준다. 아마도 사랑으로 용서하는 일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일 것이다.

109. 가장 번성할 때 더욱 조심하라

- 늙어서 드는 병은 모두 젊어서 불러들인 것이며, 쇠퇴한 뒤의 재앙은 모두 흥할 때 만들어 진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번성할 때 군자는 더욱 조심하는 법이다.

110. 새 친구를 사귐보다 옛 친구를 소중히 하라

- 사사로이 은혜를 주고받는 것은 공익을 위하는 것만 못하고, 새 친구를 사귀는 것은 옛 친구와의 정을 두텁게 하는 것만 못하다. 명성을 세우기보다는 숨은 공덕을 심는 것이 낫고, 어려운 절의보다는 평소의 행동을 삼가는 것이 낫다.

111. 권세와 사욕을 탐하지 말라

- 공평한 정론에 반대하지 말라. 한 번 범하면 수치를 만세에 남기게 된다. 권세 있는 가문과 사욕을 탐하는 집안에는 발을 들여놓지 말라. 한번 발을 디밀면 평생 동안 씻지 못할 오점을 남기게 된다.

112. 선행 없는 칭찬보다 무고한 비난이 낫다

- 뜻을 굽혀 남의 환심을 사느니 내 행동을 곧게 하여 남의 미움을 받는 것이 낫다. 좋은 일을 한 것도 없이 남에게 칭찬을 받느니, 나쁜 짓을 하지 않고도 남에게 비난을 당하는 편이 낫다.

113. 친구의 잘못은 주저하지 말고 충고하라

- 부모형제나 골육이 변을 당하면 격하게 굴하지 말고 침착하라. 친구와 사귀다가 벗의 허물을 보았다면 주저하거나 방임하지 말고 충고하라.

114. 실패한 후에도 체념하지 말라

-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빈틈없이 하고 어둠 속에 있어도 속이거나 숨기지 않으며 실패한 후에도 체념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다.
-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사람이 유능한 지도자이다.

115. 한 술의 밥으로도 평생 은인이 된다

- 천금을 주고도 한때의 환심을 사기 어렵고, 한 술의 밥으로도 평생의 은인이 되기도 한다. 대체로 사랑이 깊으면 도리어 원수가 되고, 박대함이 몹시 심하면 오히려 기쁨을 얻게 된다.

116. 재주는 드러내지 말고 감추라

- 뛰어난 재주를 어리석음으로 감추고, 어둠을 써서 밝게 하며, 맑음을 흐림 속에 깃들이게 하고, 굳힘으로써 몸을 펴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살이의 구급책이요, 안전한 은신처가 될 것이다.

117. 고난을 견디며 성공을 도모하라

- 쇠퇴의 모습은 번성함 속에 있고, 피어나는 움직임은 시들어감 속에 있다. 그러므로 군자는 안락할 때 마땅히 마음을 잡아 뒷날의 환난을 생각하고, 변을 당했을 때는 마땅히 백 번을 참고 견뎌 성공을 도모해야 한다.

118. 평범한 일상에 참된 의미가 있다.

- 신기한 것에 경탄하고 기이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원대한 식견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괴로운 가운데 절개를 지키려고 세상을 등진 채 홀로 도를 닦는다고 해서 영구적인 지조가 되는 것도 아니다.
- 때로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도 알고 보면 희망의 불씨가 되어 되어주는 경우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119. 분노와 욕망은 단호하게 끊으라

- 분노의 불길과 욕망의 물결이 무섭게 끓어오르는 순간에는, 누구라도 이를 알고 있으며 또 알고 있으면서도 범하고 만다. 아는 것은 누구이며 범하는 것은 또 누구인가? 그 순간 강력히 생각을 바꾸면 마귀도 문득 변하여 참마음이 된다.

120. 자기를 너무 믿고 객기를 부리지 말라

- 한쪽 편의 말만 들고 치우쳐 간사한 자에게 속지 말며, 자기를 너무 믿고 객기를 부리지 말며, 자기의 장점을 이용해 남의 단점을 드러내지 말며, 자기가 서투르다 하여 남의 능력을 시기하지 말라.

121. 남의 단점은 덮어주고 감싸주라

- 남의 단점을 덮어주고 감싸줘야 한다. 만약 이를 들추어 남에게 알린다면, 이는 단점으로써 단점을 공격하는 것이다. 완고한 사람이 있거든 잘 타일러라. 만역 성을 내고 미워한다면, 이는 완고함을 가지고 완고함을 구제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122. 음울한 사람을 조심하라

- 음울하고 말없는 사람을 만나거든 마음을 주지 말 것이며, 발끈하기 잘하며 잘난 체하는 사람을 보거든 입을 다물어라.

123. 긴장된 마음은 부드럽게 풀어놓으라

- 마음이 어둡고 산란할 때는 정신을 가다듬을 줄 알아야 하고, 마음이

긴장될 때면 부드럽게 풀어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두운 마음을 고칠지라도 조바심이 나는 괴로움은 다시 찾아들 것이다.

124. 털끝만한 작은 막힘이 흐름을 막는다

- 맑은 날 청명한 하늘이 갑자기 변하여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며, 거센 바람과 억수 같은 비도 홀연히 밝은 달 맑은 하늘이 되니 어찌 하늘의 움직임이 일정하겠는가? 그것은 하나의 털끝만한 막힘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 바탕도 또한 이와 같다.

125. 지식과 의지, 둘은 같이 있어야 한다

- 사리사욕을 누르는 데 있어서, 빨리 깨닫지 않으면 억제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를 알았다 하더라도 인내심이 모자라면 억제하기 힘들다. 그러나 대개 지식이란 몸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번뇌를 밝혀내는 한 알의 밝은 구슬이요, 의지란 번뇌를 베는 한 자루의 칼이다. 이 두 가지는 다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126. 속인다는 사실을 알아도 드러내지 말라

- 남이 속이다는 사실을 알고도 말하지 않고,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아도 안색을 바꾸지 않는다면, 장차 어떠한 일도 해나갈 수가 있고 무궁한 발전이 있을 것이다.

127. 마땅히 단련을 받아들여라

- 역경이나 곤경은 호걸을 단련시켜 주는 도가니와 망치이다. 마땅히 단련을 받아들인다면 몸과 마음에 모두 유익하고, 단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몸과 마음이 모두 해를 보게 된다.

128. 천지는 하나의 거룩한 어버이다

- 내 몸은 하나의 작은 천지다. 기쁨과 노여움으로 인한 허물이 없게 하고, 싫고 좋음에 절제된 법도가 있게 하면, 이것이 곧 천지의 이치에 순응하는 공부가 될 것이다. 천지는 하나의 거룩한 어버이다.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이 없게 하며 모든 사물에 근심이 없도록 하면, 이 또

한 화목을 돈독하게 하는 기상이다.

129. 미리 남을 의심하지 말라

- 남을 헤치려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며,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어서도 안 된다. 이것은 생각이 소홀함을 경계하는 말이다. 차라리 남에게 속아 넘어갈망정 미리 남이 나를 속일 것이라고 짐작하지 말라. 이것은 살핌이 지나침을 경계하는 말이다. 이 두 말을 아울러 간직한다면 생각이 깊어져서 덕이 두터워질 것이다.

130. 공론을 이용하여 사사로운 감정을 풀려고 하지 말라

- 여러 사람이 의심한다고 해서 자기 소신을 꺾지 말고, 자기 의견만을 내세워 남의 말을 흘려듣지 말라. 또한 사사로운 은혜에 사로잡혀 대국을 해치지 말고, 공론을 이용하여 사사로운 감정을 풀려고 하지 말라.

131. 칭찬과 비난에 신중하라

- 착한 사람과 빨리 친해질 수 없거든 미리 칭찬하지 말라. 이간질하는 사람의 중상모략이 있을까 두렵다. 악한 사람을 쉽게 내칠 수 없다 하여 먼저 발설하지 말라. 뜻밖의 재앙을 부를까 두렵다.

132. 위대한 것은 숨겨진 채 은밀히 준비된다

- 푸른 하늘에 빛나는 태양처럼 드높은 절의도 어두운 방안에서 길러낸 것이며, 천지를 흔드는 빼어난 경륜도 깊은 못에서 살얼음 밟듯 조심하며 만든 재주이다.

133. 가족의 사랑은 당연하다.

- 아버지가 사랑하고 아들이 효도하며, 형이 우애 있고 아우가 공경하며, 비록 극진한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해도 그것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일 뿐이므로 털끝만큼도 감격스런 생각을 가지고 볼 것이 못된다. 만약 베푸는 자가 덕으로 여기고, 받는 쪽에서 은혜로 생각한다면 이는 곧 길에서 오다가다 만난 사람들의 일이요, 장사꾼의 관계가

되고 말 것이다.

134. 자랑하지 않으면 허물도 없다

- 아름다움이 있으면 반드시 추함이 있어 대비가 되니, 내가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추하다고 할 것인가? 깨끗함이 있으면 반드시 더러움이 있어 짝을 이루니, 내가 깨끗함을 초월하여 자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더럽다 할 것인가?

135. 변덕과 시기, 질투를 다스리라

- 뜨거웠다 차가웠다 하는 변덕은 부귀한 사람이 빈천한 사람보다 더 시하고, 질투와 시기하는 마음은 남들보다 육친 간에 더욱 심하다. 만약 이때 냉철한 마음이나 평정한 마음으로 제어하지 않는다면, 거의 번뇌의 가운데 앉아 지내지 않는 날이 없을 것이다.

136. 은혜와 원한은 지나치게 밝히지 말라

- 공과 과실은 어떤 경우에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혼동하면 사람이 게으른 마음을 품을 것이다. 은혜와 원한은 지나치게 밝히지 말아야 한다. 이를 밝히면 사람들이 불신하게 된다.
- 인생에도 때가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거둘 때를 조용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137. 지위가 지나치게 높으면 위태로움을 알라

- 벼슬자리는 너무 높지 않아야 할 것이니 지나치게 높으면 위태로우며, 능한 일은 그 힘을 다 쓰지 말아야 할 것이니 힘을 다 쓰면 쇠태해지며, 행실은 너무 고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너무 고상하면 비방이 일어나고 시기가 닥친다.

138. 선이 숨겨진 자는 공이 크다

- 악은 그늘을 싫어하고 선은 햇볕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드러난 악은 재앙이 얕고 숨겨진 자는 재앙이 깊으며, 선이 나타난 자는 공적이 작고 숨겨진 자는 공이 크다.

- 선행은 어느 때에라도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된다. 그리고 감추어진 성행일수록 더욱 귀하고 아름답다.

139. 덕은 주인이고 재주는 종이다

- 덕은 재주의 주인이고 재주는 덕의 종이다. 재주가 있으면서 덕이 없다면 마치 집 안에 주인 없이 종이 마음대로 집안일을 처리하는 것과 같다. 어찌 갖가지 도깨비가 설쳐대지 않겠는가.
- 재주는 드러난 총명이고 덕은 감춰진 총명이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덕을 앞세워야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재주란 짧은 시간에 반짝이기는 해도 그 뿌리가 깊지 못해서 또 다른 재주를 만나면 시샘을 벌인다. 그러나 덕에는 시샘해야 할 적이 없다. 덕은 쌓기가 어려운 만큼 그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140. 달아날 길을 터 주라

- 간악한 사람을 제거하고 요망한 무리를 막으려면 한 곳 정도의 달아날 길을 터 줘야 한다. 만약 한 군데도 몸둘 곳을 용납하지 않으면, 마치 쥐구멍을 막는 것과 같아서 소중한 기물들을 모두 물어뜯을 것이다.

141. 허물과 환난은 남과 함께하라

- 마땅히 허물은 남과 함께할지언정 공은 함께하지 말라. 공을 같이하면 서로 시기하게 된다. 환난은 남과 함께할지언정 안락은 함께하지 말라. 안락을 같이하면 서로 원수가 되고 말 것이다.

142. 말 한 마디로도 사람을 구할수 있다

- 군자와 선비는 가난하여 물질로 남을 구제하지는 못하지만, 어리석어 방황하는 사람을 만나면 말 한 마디로써 깨우쳐 주고, 위급하여 허둥대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말 한 마디로써 이를 구해 줄 수 있으니, 이 또한 그지없는 공덕이다.

143. 인정의 병폐를 극복하라

- 굶주리면 달라붙고, 배부르면 떠나가며, 따듯하면 몰려들고, 추우면 버

리니, 이것이 바로 인정의 병폐이다.

144. 가볍게 움직이지 말라

- 군자는 마땅히 냉철한 눈을 깨끗이 닦아야 하고, 굳은 마음을 삼가 가볍게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145. 식견을 키우라

- 덕은 도량을 따라 발전하고 도량은 식견에 따라 자라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덕을 두터이하려면 도량을 넓혀야 하고, 도량을 넓히려면 식견을 키워야 한다.

146. 새벽의 맑은 시간에 깨어 마음을 닦으라

- 외로운 등불이 반딧불이처럼 빛나고 삼라만상이 고요해지면, 이는 우리가 편안히 잠이 들 때요, 새벽 꿈에서 막 깨어나 만물이 아직 움직이지 않으니, 이는 우리가 혼돈에서 빠져나올 때이다. 이때를 타서 한 마음으로 빛을 돌려 밝게 비추어 보면, 비로소 이목구비가 다 몸을 묶는 질곡이요, 정욕과 기호가 다 마음을 타락시키는 기계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유명한 기업들의 CEO가 대부분 신문배달을 했다. 신문배달은 작은 일이지만 이처럼 많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작은 습관을 통해 큰 일이 성취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날은 새벽형 인간이 각광받는 시대이다.

147. 반성은 모든 일에 약이 된다.

- 자기를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은 부딪치는 일마다 모두 약이 되며, 남을 원망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마다 모두 창칼이 된다. 반성하는 한 가지 길은 선으로 나아가고, 원망하는 한 가지 길은 악의 근원을 이루니 둘의 거리는 하늘과 땅의 사이처럼 멀다.

148. 정신은 영원히 새롭다

- 사업과 문장은 몸과 더불어 없어지지만 , 정신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새롭다. 공명과 부귀는 시대에 따라 바뀌지만, 절개는 천 년이 하루와 같다. 군자는 진실로 전자의 것으로 후자의 것을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정신은 몸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파워 에너지 보급소이다.

149. 사람의 지혜나 재주는 믿을 수 없다

- 물고기를 잡으려고 쳐 놓은 그물에 기러기가 걸려드는 경우도 있고, 사마귀가 먹이를 탐내는 곳에 참새가 또한 그 뒤를 엿보기도 한다. 계략 속에 계략이 숨어 있고 변고 밖에 다시 변고가 일어나니, 어찌 인간의 지혜와 솜씨를 어찌 족히 믿을 수 있겠는가.

150. 참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 사람으로서 한 점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이는 일개 허수아비일지니, 무슨 일이든 허망할 것이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한 조각의 원활한 맛이 없으면 이는 곧 한 개의 나무인형과 같으니, 가는 곳마다 막힘이 있을 뿐이다.

151. 괴로움을 버리면 즐거움은 절로 온다

- 물은 물결만 일지 않으면 절로 고요하고, 거울은 먼지만 끼지 않으면 저절로 맑다. 그러므로 굳이 마음을 애써 맑게 할 것이 아니라, 괴롭게 하는 것만 버린다면 절로 맑아질 것이다. 또한 즐거움도 굳이 찾을 것이 아니라, 괴로움만 버린다면 절로 즐거워질 것이다.

152. 모든 일에 스스로 조심하라

- 한 번 잘못된 생각으로 하늘의 뜻을 거역할 수도 있고, 한 마디 잘못한 말로 천지자연의 조화를 깨뜨리며, 한 가지 그릇된 일로 자손들에게 재앙을 줄 수도 있으니, 모든 일에 스스로 조심하여 경계해야 한다.

153. 엄한 다그침보다 스스로 감화되게 하라

- 일은 급하게 서두르면 명백해지지 않고, 너그럽게 늦추면 저절로 밝혀지니 조급하게 굴어 그르치지 말라. 사람은 부리려고 할 때 순종하지 않다가도, 가만히 놓아두면 스스로 감화되는 수가 있으니 엄하게 단속하여 그 고집이 심해지게 하지 말라.

154. 덕으로 수양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 절개와 의리가 높고 문장이 탁월할지라도, 덕으로 수양된 것이 아니라면, 결국 혈기의 간신 노릇이나 하고 재주의 손발이 되고 말 것이다.

155. 전성기 때 물러나라

- 일을 그만두고 물러나려거든 전성기 때 물러나고, 몸 둘 곳을 고르려거든 남보다 뒤쳐진 자리에 앉아라.

156. 보답을 생각하지 말고 베풀라

- 덕을 삼가려면 마땅히 아주 작은 일부터 삼가고, 은혜를 베풀 때는 갚지 못할 사람에게 힘써 베풀라.

157. 번잡을 버리고 마음을 고요히 지키라

- 시중 사람들과 사귐은 산골 노인을 벗 삼는 것만 못하고, 고관대작의 집에 드나들며 허리를 굽실거리는 것은 오막살이를 찾아가는 것만 못하다. 거리에 떠도는 말을 듣는 것은 나무꾼과 목동의 노래를 듣는 것만 못하고, 현재 사람들의 덕 없음과 과실을 말함은 옛 사람의 아름다운 말과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만 못하다.

158. 덕은 모든 일의 바탕이다

- 덕이란 사업의 바탕이니,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집이 오래간 적은 없었다.

159. 덕 있는 마음은 자손의 무성한 뿌리가 된다

- 남들에게 마음의 덕을 잘 베푸는 것이 자손의 뿌리가 된다. 뿌리를 내리지 않고 가지와 잎이 무성한 일은 없었다.
- 성공한 사람들의 최고 자산은 한결같은 성실성과 인내, 그리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다. 작은 일을 정성껏 감당하는 사람이라야 큰일도 감당할 수 있다.

160. 자기 집에 무한히 있는데 왜 거지 노릇을 하는가

- 옛 사람이 이르기를 “자기 집에 무한히 있는 것을 버려두고 왜 남의 집 문전에 밥그릇을 디밀며 거지 노릇을 하는가?”라고 했다. 또 이르기를 “벼락부자가 된 가난뱅이여, 꿈 이야기는 그만하라. 누구네 집 부엌인들 불을 때면 연기가 안 날까??라고 했다. 전자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한 것이고, 후자는 자기가 가진 보잘것없는 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한 것이다. 가히 이것을 학문의 간절한 훈계로 삼을 만하다.

161. 학문은 끼니와 같으니 일마다 깨우치라

- 도덕은 일종의 공증적인 물건이니 마땅히 사람마다 행하게 하고, 학문은 날마다 집에서 먹는 일종의 끼니와 같으니 마땅히 일마다 깨우치고 삼가게 하라.

162. 남을 믿는 사람은 진실하다

- 남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성실하지 못하더라도 자기만은 성실하기 때문이며, 남을 의심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속이지 않더라도 자신이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이다.

163. 너그러운 사람은 만물을 살아나게 한다

- 생각이 너그럽고 두터운 사람은 봄바람이 따뜻하게 만물을 기르는 것 같아서 무엇이든지 이런 사람을 만나면 살아나고, 마음이 모질고 각박한 사람은 차가운 눈이 만물을 얼게 하는 것과 같아서 무엇이든지 이런 사람을 만나면 죽는다.

164. 선악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난다

- 착한 일을 하고 그 이익을 보지 못함은 수풀 속의 보이지 않는 데서 자라는 동과와 같아서 남이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자라나며, 악한 일을 하고 그 손해를 보지 않음은 마치 앞뜰의 봄눈 녹듯 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165. 불우한 친구에게는 더 따뜻하게 대하라

- 옛 친구를 만나가든 이전에 사귀었던 정에 금이 가지 않도록 마음가짐을 더욱 새롭게 하고, 비밀스런 일을 처리할 때는 남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더욱 분명히 할 것이며, 불우한 친구나 사람을 대할 때는 예우를 더욱 융숭하게 한다.

166. 검약을 앞세워 인색을 가리지 말라

- 근면이란 도덕과 의리의 실행에 민첩한 것인데도 세상 사람들은 근면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가난을 면한다. 검약이란 재물에 담박함이거늘 세상 사람들은 검약의 이름으로 자신의 인색함을 꾸민다. 군자의 몸을 지키는 방법이 도리어 소인의 사리사욕의 영위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167. 즉흥적인 일은 오래가지 않는다

- 즉흥적으로 일을 시작한 사람은 일을 시작하자마자 곧 멈추니, 이 어찌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수레바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일시적인 감정과 지혜로 얻은 깨달음은 깨닫자마자 금방 흐려지니 영원히 밝은 등불은 될 수 없다.

168. 남의 허물은 관대하게, 자기 허물은 엄하게 하라

- 남의 허물은 용서해야 하지만 자기의 허물은 용서해서는 안 되며, 자기의 고통은 굳게 참아야 하지만 남의 고통에 대해서는 방관하지 말라.

169. 어울려 살며 섞이지 않아야 참된 청백이다

- 능히 속세를 초탈할 수 있는 것이 기인이지, 일부러 기이한 척한다면 괴이한 사람이다. 오속에 섞이지 않아야 곧 청백한 것이지, 속된 것을 끊고 청백만을 찾는 자는 청백이 아니라 과격이 된다.

170. 은혜는 박하게 시작하여 두텁게 이어가라

- 은혜는 박하게 베푸는 것에서 시작하여 두텁게 해야 한다. 처음에 두텁게 하다가 나중에 박하게 한다면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을 것이다. 위엄은 엄격하게 시작하여 너그럽게 해야 한다. 처음에는 너그럽게 하다가 나중에 엄격하게 하면 사람들이 그 가혹함을 원망할 것이다.

171. 깨끗한 뜻으로 마음을 맑게 하라

- 마음을 비우면 참된 본성이 나타난다. 쉬지 않고 본성을 구하려 애쓰는 것은 마치 물결을 헤치며 달을 찾는 것과 같다. 뜻이 깨끗하면 마음도 맑아진다. 뜻을 맑게 하지 않고 마음만 맑아지기를 구하는 것은 마치 거울을 찾으려고 하면서 먼지를 더함과 같다.

172. 남들의 태도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말라

- 내가 귀할 때 사람들이 받드는 것은 나의 높은 감투를 받드는 것이다. 내가 천할 때 업신 여기는 것은 베옷과 짚신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 나를 받드는 것이 아니니 어찌 기뻐할 것이며, 진정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니 어찌 성낼 것인가?

173. 사랑이 없다면 참된 인간이 아니다.

- '쥐를 위하여 항상 밥 덩어리를 남겨 두고, 나방을 불쌍히 여겨 등불을 켜지 않는다'라는 옛 사람의 생각은,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며 생활하는 데 마땅히 있어야 할 근본적인 것이다. 만약 이런 마음이 없다면 흙이나 나무와 다름이 없다.

174. 사람의 마음 바탕은 곧 하늘과 같다

- 사람의 마음 바탕은 곧 하늘과 같다. 기쁜 생각은 빛나는 별이나 아름다운 구름과 같고, 분노는 성난 우레나 사나운 비와 같다. 또한 인자

한 생각은 부드러운 바람이나 달콤한 이슬과 같고, 엄숙한 생각은 뜨거운 햇볕이나 찬 서리와 같으니 어느 것이라도 없어서는 안된다. 다만 생길 자리에 생기고 스러질 자리에 스러져 시원스럽고 거리낌이 없어야 하는데, 이럴 수만 있다면 곧 하늘과 한 몸이 되는 것이다.

175. 일의 유무를 떠나 지혜로 마음 중심을 잡으라

- 일이 없을 때는 마음이 어두워지기 쉬우니 정적 속에서도 깨어나 밝게 비춰보아야 하고, 일이 있을 때는 마음이 흩어지기 쉬우니 밝은 지혜로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176. 냉정한 눈으로 일을 파악하라

- 일을 의논하는 사람은 몸을 그 일의 밖에 두어 이해를 모두 살펴야 하고, 일을 맡을 사람은 몸을 일의 안에 두어 이해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
- 예전의 광부들이 15cm만 더 팠더라면 황금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따금 너무나 일치감치 포기할 때가 있다. 계획을 세웠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인내와 의지가 필요하다.

177. 요직에 있을 때는 몸가짐을 공평하게 하라

- 군자가 권세 막강한 요직에 앉았을 때는 몸가짐을 엄정하고 공평하게 하고, 마음은 온화하고 평이하게 갖되 조금이라도 아첨꾼들과 가까이하지 말 것이며, 또한 너무 과격하게 굴어 소인들의 독침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178. 원만함으로 몸을 보전하라

- 절개와 의리를 내세우는 사람은 절개와 의리 때문에 헐뜯음을 당하고, 도덕과 학문을 내세우는 사람은 도덕과 학문 때문에 원망을 불러들인다. 그러므로 군자는 악한 일에 가까이하지 않고 좋은 일에도 가까이서지 않는다. 오직 원만한 화기만이 곧 몸을 보전하는 보배인 것이다.

179. 진심으로 감화시켜 내 편을 만들라

- 속이는 자를 만나거든 진심으로 감동시키고, 포악한 자를 만나거든 온화한 기운으로 감화시키며, 마음이 비뚤어지고 사욕에 어두운 사람을 만나거든 정의와 절개로 격려하라. 이렇게 하면 천하에 나의 휘하에 들어오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다.

180. 자비와 결백은 향기로운 이름이 오래간다

- 온 정성을 다한 자비는 가히 천지간의 화기를 빚어낼 것이고, 작은 생각의 결백은 가히 맑고 향기로운 이름을 백 대에 걸쳐 밝게 드리울 것이다.

181. 평범한 덕행만이 화평을 부른다

- 은밀한 계교와 괴상한 습관, 이상한 행동과 기이한 재주는 모두 세상을 사는 데 화근이 된다. 그러므로 오직 한 가지, 평범한 덕행만이 혼돈을 온전히 하여 화평을 부를 수 있다.

182. 세상을 무난히 사는 방법은 참는 것이다

- 옛말에 이르기를 '산에 오르거든 험한 비탈길을 견디고, 눈을 밟거든 위험한 다리를 건너는 걸 견뎌라'라고 했다. 즉 이 견딜 耐자 한 글자는 깊은 뜻을 지니고 있다. 만약 이 비뚤어지고 험한 인정과 고르지 못한 세상길 에서 견딜 내 자 한 글자를 얻어 붙잡고 지나가지 않는다면 어찌 가시덤불과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183. 마음 바탕을 밝게 지키는 사람이 당당한 사람이다

공명을 자랑하고 문장을 뽐내는 사람은 모두 외물에 의해 훌륭해진 것으로 진정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바탕이 찬란하게 빛나는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면, 사소한 공적조차 하나 없고, 글자 한 자 안 배웠다 할지라도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184. 어떤 때에도 마음 중심을 잃지 말라

- 바쁜 중에 한가로움을 얻으려면 먼저 한가할 때 그 마음의 자루를 찾아들고, 시끄러운 가운데에서 고요함을 취하려면 먼저 고요할 때 그

중심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사건에 따라 흔들리게 된다.

185. 남의 인정을 무시하지 말라

- 나의 마음을 흐리게 하지 말고, 남의 인정을 무시하지 않으며, 재물을 헛되이 다 탕진하지 말라. 이 세 가지는 가히 천지를 위하여 마음을 세우고, 만민을 위하여 목숨을 세우며, 자손을 위하여 복을 만드는 길이다.

186. 공직에 임할 때와 가정에 필요한 말

- 공직에 임할 때 두 마디의 말이 있으니, 오직 공평하면 밝은 지혜가 생기고, 오직 청렴하면 위엄이 생긴다. 가정에는 두 마디의 말이 있으니, 오직 용서하면 불평이 없고, 오직 검소하면 살림이 넉넉하다는 것이다.

187. 부귀의 자리에서 빈천한 처지를 헤아리라

- 부귀한 처지에 있을 때는 마땅히 빈천한 처지의 고통을 알아야 하고, 젊었을 때 모름지기 노쇠한 처지의 괴로움을 생각해야 한다.

188. 지나치게 분명하지 말고 너그럽게 용납하라

- 몸가짐은 지나치게 깨끗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욕됨과 때 묻음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 남과 사귈 때는 지나치게 분명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선악과 지혜와 어리석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189. 소인과 원수를 맺지 말라

- 소인과 원수를 맺지 말라. 소인에게는 그 나름의 상대가 있다. 군자에게 붙어 아첨하지 말라. 군자는 원래 사사로운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190. 이론에 집착하는 병은 고치기 어렵다

- 욕심에 날뛰는 병은 고칠 수 있으나, 이론에 집착하는 병은 고치기 어렵고, 사물의 장애는 없앨 수 있으나, 의리에 얽매인 장애는 없애기

어렵다.
-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적절한 시기와 타이밍을 잡아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191. 마음 수양은 깊게, 일은 신중히 하라
- 마음의 수양은 마땅히 백 번을 단련하는 쇠붙이처럼 해야 한다. 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깊은 수양이 아니다. 일을 할 때는 마땅히 천 균이나 나가는 무거운 활로 목표물을 겨냥하듯이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가벼이 한다면 큰 업적을 이룰 수 없다.

192. 아첨과 칭찬을 경계하라
- 소인에게 미움을 받고 욕을 먹을지라도, 그들에게 아첨이나 칭찬을 듣지 말아야 한다. 또한 소인은 군자에게 꾸중을 들어가며 깨우칠지언정, 군자에게 포용당해 용서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193. 명예욕은 숨어 있어서 그 해가 더 깊다
-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는 자는 어차피 도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 해로움이 겉으로 드러나 있어 해가 끼친다 해도 심하지 않지만, 명예를 탐하는 자는 은근히 도덕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 해로움은 숨겨져 있는 만큼 깊고 심하다.
- 인간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는 경쟁에서 한없이 나약해진다는 것이다. 경쟁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진정한 성자다.

194. 각박함과 경박함을 경계하라
- 남에게 입은 은혜는 비록 깊어도 갚지 않으나, 원한은 얕아도 갚는다. 남의 약함을 들었을 때는 비록 명백하지 않더라도 의심하지 않으나, 선함은 뚜렷해도 의심한다. 이것이야말로 각박함의 극치요, 경박함이 심한 것이니 신경 써서 경계해야 한다.

195. 고자질하고 헐뜯지 말라
- 고자질하고 헐뜯는 사람은 마치 조각구름이 해를 가리는 것과 같아서

오래지 않아 저절로 밝혀진다. 아양을 떨고 아첨하는 사람은 마치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이 살갗을 해치는 것과 같아서 그 해로움을 깨닫지 못한다.

196. 옹졸하고 급한 마음을 경계하라

- 높고 험한 산에서는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나, 굽이쳐 감도는 골짜기에는 초목이 무성하다. 물살이 세고 급한 곳에는 물고기가 없으나, 물이 깊고 고요하면 물고기와 자라들이 모여든다. 이처럼 지나치게 고상한 행동과 옹졸하고 급한 마음은 군자가 깊이 경계해야 한다.

197. 겸허하고 원만한 성격이 큰 성공을 이룬다

- 큰 공적을 세우고 사업을 크게 이룬 자는 겸허하고 원만한 성격이 대부분이고, 일을 그르치고 기회를 놓치는 사람 중에는 고집 센 사람이 많다.

198. 세상살이에는 알맞은 조율이 필요하다

-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꼭 세속과 같게 하지도 말고, 다르게 하지도 말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남을 싫어하게 하지도 말고, 또한 기쁘게 하지도 말라.

199. 군자는 만년에 정신을 더욱 갈고 닦아야 한다

- 하루해가 저무는데 오히려 노을은 아름답고, 한 해가 장차 저물려고 하는데 새로이 귤이 꽃다운 향기를 뿜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만년에 다시금 정신을 백 배로 갈고 닦아야 한다.

200. 총명함과 재능을 드러내지 말라

- 매의 서 있는 모습은 조는 것 같고, 범은 병든 듯 걷는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사람을 움켜잡고 물어뜯는 그들의 수단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총명함을 드러내지 말고 재능도 뚜렷하게 나타내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큰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

201. 검약과 겸양도 지나치면 좋지 않다
- 검약은 아름다운 덕이나 지나치면 인색하고 천박해져서 오히려 정도를 해치게 되고, 겸양은 아름다운 행위지만 그 도가 지나치면 비굴해져서 본마음을 의심하게 된다.

202.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근심하지 말라
-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근심하지 말고, 마음이 유쾌하다고 기뻐하지 말며, 오래 편안함을 믿지 말고, 처음이 어렵다고 꺼리지 말라.

203. 잦은 술잔치를 경계하라
- 술잔치의 즐거움이 잦은 집안은 좋은 집안이 아니고, 명성이 나기를 좋아하면 선비가 아니며, 높은 벼슬에 생각이 많으면 좋은 신하가 아니다.

204.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바뀌게 하라
-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맞는 것으로만 즐거움을 삼기 때문에 도리어 즐거움에 이끌려 괴로운 곳에 있게 된다. 통달한 선비는 마음에 어긋나는 것으로도 즐거움을 삼기 때문에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바뀌어 온다.

205. 가득 찬 곳과 위급한 곳의 마음 졸임을 알라
- 가득 차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은 마치 물이 넘치려다가 아직 넘치지 않음과 같아서 다시 한방울을 더함도 마음 졸이며 꺼리고, 위급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마치 나무가 꺾이려다가 아직 꺾이지 않음과 같아서 다시 조금 더 누르는 것도 마음 졸이며 꺼리는 것이다.

206. 냉철한 눈과 귀와 마음을 가지라
- 냉철한 눈으로 사람을 보고, 냉철한 귀로 말을 들으며, 냉철한 정으로 일에 대응하고, 냉철한 마음으로 도리를 생각하라.

207. 어진 사람과 빈천한 사람의 차이점
- 어진 사람은 마음이 너그럽고 느긋하기 때문에 복이 두텁고 경사가 오

래가며 일마다 너그럽고 느긋한 기상을 이룬다. 빈천한 사람은 마음이 좁고 급하기 때문에 녹이 박하고 은혜로움이 적어 일마다 좁고 급한 모양을 이룬다.

208. 사람을 사귀는 데는 신중하라

- 악한 말을 듣더라도 금방 미워하지 말라. 고자질하는 자의 분풀이가 두렵다. 선한 말을 듣더라도 금방 사귀지 말라. 간사한 사람의 출세를 이끌어 줄까 두렵다.
- 참된 친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알 수 있다.

209. 마음이 온화해야 복이 절로 모여든다

- 성질이 조급하고 마음이 거친 사람은 한 가지 일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이 온화하고 기질이 순한 사람은 백 가지 복이 절로 모여든다.
- ‘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화급을 다투는 일일수록 여유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210. 사람을 각박하게 부리지 말라

- 사람을 부릴 때는 각박하게 대하지 말라. 각박하게 대하면 성과를 올리려는 사람도 떠나게 된다. 친구를 사귈 때는 마구 사귀지 말라. 마구 사귀면 아첨하는 자가 모여든다.

211. 위기에는 기지를 발휘하라

- 바람이 비껴 불고 빗발이 급한 곳에서는 마땅히 다리를 굳건히 세워야 하고, 꽃이 무르익고 버들이 탐스러운 곳에서는 눈을 높은 데 두고, 길이 위태롭고 험한 곳에서는 머리를 재빨리 돌려야 한다.
-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는 늪에 빠진 친구에게 총을 겨누면서 한 말 “ 내 총은 자네의 머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자네의 생각이었네” 이 말로 친구를 늪에서 구해냄.

212. 공명심이 강한 사람은 겸양을 익혀라

- 절개와 의리가 있는 사람은 온화한 마음을 길러야 분쟁의 길을 걷지

않을 것이고, 공명심이 강한 사람은 겸양의 덕을 체득해야 비로소 질투의 문을 열지 않을 것이다.

213. 때에 따라 몸가짐을 달리 하라

- 공직에 있을 때는 편지 한 장을 쓰더라도 절도 있게 써야 한다. 그래야 요행을 바라고 모여드는 무리를 막을 수 있다. 은퇴 후 시골에서 지낼 때에는 몸가짐을 너무 엄히 굴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허물없이 다가와 정을 두텁게 할 수 있다.

214. 대인이나 서민을 두루 두려워하라

- 대인을 두려워하라. 대인을 두려워하면 방종한 마음이 없어진다. 서민을 두려워하라. 서민을 두려워하면 횡포를 휘두른다는 평을 듣지 않을 것이다.

215. 뜻대로 안 될 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라

-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문득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면 원망하는 마음이 저절로 스러진다. 마음이 조금 게을러질 때 문득 나보다 나은 사람을 생각하면 정신이 분발한다.

216.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살라

- 기쁨에 들떠 가볍게 승낙하지 말고, 술 취한 기분에 성내지 말라. 유쾌함에 들떠 일을 많이 벌이지 말고, 고달프다 하여 끝나기도 전에 그치지 말라.

217. 일에 집중하여 자유로운 경지에까지 이르라

- 독서를 잘하는 사람은 책을 읽어 손발이 절로 춤추는 경지에까지 이르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사물을 잘 보는 사람은 마음과 정신이 녹아서 물건과 하나 될 때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외형에 구애받지 않는다.

218. 하늘의 뜻, 세상의 뜻

- 하늘은 지혜로운 한 사람을 보내 여러 사람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게 했거늘, 세상은 오히려 제 잘난 것을 뽐내어 남의 모자라는 것을 들춰내려 한다. 하늘은 부유한 사람 하나를 보내 여러 사람을 가난에서 구제하게 했거늘, 세상은 오히려 제 가진 것을 자랑하여 남의 가난함을 업신여기려 든다. 참으로 천벌을 받을 일이 아닐 수 없다.

219. 이도 저도 아닌 중간이 문제다
- 지극한 현인이야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또한 어리석은 사람은 아는 것도 없고, 생각도 없기 때문에 더불어 학문을 논할 수도 있고 공을 세울 수도 있다. 그런데 유독 중간 사람들이 문제다. 그들은 나름대로 생각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억측과 시기도 많아서 일마다 함께하기가 어렵다.

220. 입을 굳게 지키라
- 입은 곧 마음의 문이니 입을 굳게 지키지 못하면, 마음의 참기틀이 빠져 나간다. 뜻은 곧 마음의 발이니 뜻을 지켜내지 못하면, 마음이 나쁜 길로 달려가 버리고 만다.

221. 남의 허물은 작게, 내 허물은 크게 보라
- 남을 꾸짖을 때는 허물이 있는 가운데서도 허물이 없음을 찾아내면 감정이 평온해진다. 자기를 꾸짖을 때는 허물없는 속에서도 허물이 있음을 찾아내면 덕이 자란다.
- 작은 관용 하나도 태산보다 더한 보답으로 다가오는 것이 삶의 이치다.

222. 어린이는 충분한 단련을 받아야 한다
- 어린이는 어른의 씨앗이고 수재는 훌륭한 인물의 씨앗이다. 그러므로 만약 어릴 때 화력이 모자라 단련이 완전하지 못하면, 훗날 세상을 살아나가고 조정에 설 때 훌륭한 그릇이 되기 어렵다.

223. 외로운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라

-

- 면 근심한다. 또한 군자는 권세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지만, 외로운 사람을 대하면 마음 아파한다.
-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다정하고 따뜻한 한 마디 말은 상대방의 영혼까지 포근하게 하고 부유하게 만들어 준다.

224. 일찍 숙성하는 것보다 대기만성이 낫다

- 복숭아꽃과 오얏꽃이 비록 곱다 한들 어찌 푸른 소나무의 굳은 절개와 같을 수 있겠는가? 배와 살구가 비록 달다 한들 어찌 노란 유자와 푸른 귤의 맑은 향기와 같을 수 있겠는가? 과연 맞는 말이다. 곱고 일찍 시드는 것은 담백하고 오래가는 것만 못하며, 일찍 숙성하는 것은 늦게 이루어지는 것만 못하다.

225. 고요 중에 인생의 참된 경지를 찾으라

- 바람 자고 물결 고요한 가운데에서 인생의 참다운 경지가 보이고, 맛이 담담하고 소리가 드문 곳에서 마음의 본래 모습을 알 수 있다.
- 더 크게, 더 높이, 더 빠르게 …… 모든 것이 너무 신속하게 발전해 어지러울 정도인 오늘날이지만, 마음만은 고요하게 지키며 살 수 있는 내적 힘을 길렀으면 좋겠다. 분주와 한가로움이 다 마음 안에서 조종되기 때문이다.

  安貧樂道 : 가난 속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道)를 즐김.

--------• 낙향하여 ~하며 지내고 있다.